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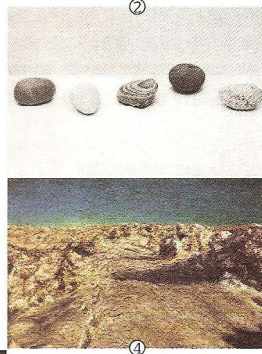


**우리
방금
입학했어요**

- 1교시 공상하기: 드넓은 디자인의 세계를 헤엄치기 위해서는 뇌를 비우고 상상력을 채워 넣어야 한다. 학생들은 필립 스타크의 거실에서 조용히 명상의 시간을 보낸다.
- 2교시 굴 양식: 필립 스타크는 현재 부인과 함께 TV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섬에서 굴 양식을 하며 지낸다. 디자이너는 끼니도 스스로 디자인할 줄 알아야 한다.
- 3교시 낮잠 자기: 그는 오전에는 일을 하지 않고 낮잠을 굉장히 즐긴다. 킷슐과의 관련 꿈을 꾸면서 디자인에 대한 영감을 얻는다. 학생들 역시 낮잠을 통해 디자인을 배운다.
- 4교시 남의 집 화장실, 거실 둘러보기: 가구 전시장은 미술관이 아닌 평범한 집이어야 한다는 필립 스타크. 그를 따라서 학생들은 이웃집 가정 방문을 통해 새로운 작품 스케치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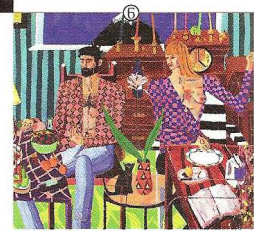
관람을 피하고 싶다고 노래를 했더니, 어느새 9월이 성큼 왔습니다. 이제 바람의 노래를 들으며 반가운 가을을 맞이할 일만 남았네요.

e n t e r t a i n m e n t t e n d c u l t u r e



ART EXPLORATION exhibitions

대부분의 경우, 비행은 단지 여행을 위해 견뎌야 할 수단 정도로 여겨지기 일쑤다. 그러나 대림미술관이 11월 9일까지 독일 비트라 디자인 미술관과 함께 마련한 전시 <에어월드 : 하늘 위 디자인의 모든 것>은 비행기와 공학,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다. 산업디자이너인 빌 게디스가 설계한 여객기, 루프트 한자 독일 항공과 스위스 항공의 로고 디자인 및 포스터, 크리스찬 라크로와와 크리스찬 디올이 만든 승무원 유니폼, 앙증맞은 기내 식기 등을 모두 살펴볼 수 있다. 국내 대표 화랑인 갤러리 현대는 9월 3일, 갤러리 현대 강남을 단련하여 다양한 특별전을 선보인다. 한국 추상 미술의 1세대 작가인 김환기와 유영국,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 백남준, 극사실적 화풍의 정형열 단아한 단색화 작업으로 알려진 정상화, 이우환, 문승근, 늘 독특한 질감과 색채를 보여주는 오치균의 작품이 한데 모였다. 두트 서울의 <B-Side>전은 뮤지션들이 곧잘 발표하는 B사이드 앨범에서 힌트를 얻은 기획이다. 22명 미술 작가들의 '좀 특별한' 작업을 공개한다는 아이디어가 재미있다. 김상곤, 박미나, 사사, 이동기, 잭슨 홍 등이 지금껏 각자가 쌓아온 이미지들을 유쾌하게 배반할 예정이다. 기간은 9월 3일부터 12일까지다. 갤러리 아이엘아트스는 8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라이언 슈나이더와 에밀리 노엘 캠버트의 작품을 소개한다. 전시 제목은 <Day to Day>. 일상의 순간을 강렬한 색감으로 묘사하는 두 작가의 개성이 인상적이다. 배영환은 독특한 설치 작업과 조각으로 예리한 사회 의식을 노출하는 작가다. 8월 22일부터 9월 20일까지 PKM 갤러리에서 열릴 그의 전시 <Insomnia>에선, 인간의 개인적이고 내밀한 부분을 탐색하려는 시도가 보인다. 공근혜 갤러리는 아날로그 인화 방식으로 그림 같은 공간을 완성해내는 작가, 김수강의 신작 전시를 마련한다. 10월 11일부터 11월 9일까지 계속될 <조약들> 전에서 흑백의 프레임 안에 담겨 그 담담한 플랜이들과 마주할 수 있다.



- 1 에밀리오 푸치의 브라니프 인터내셔널을 위한 첫 번째 컬렉션 'Air Strip' 캠페인 사진
- 2 김수강 <조약들>
- 3 김상곤 <B-Side>
- 4 오치균 <겨울 산타페 2>
- 5 배영환 <Insomnia>
- 6 라이언 슈나이더 <Dumb Spirituals>